

지역 소식통

익산시, 시·군 재난관리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

익산시는 전북도가 주관한 '2016년 시·군 재난관리 실태평가'에서 14개 시·군 중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익산시는 풍수해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실태와 지진종합대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급경사지 14개소, 세월호 7개소를 등 21개소를 지정했다.

공무원 및 민간인 42명을 관리자로 지정하고, 민관합동 시설점검과 SNS홍보 등으로 관리에 힘썼다.

도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관련 전공분야 대학교수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으며, 서면평가 및 기관장 인터뷰 등을 실시했다.

배수문 시민안전과장은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 익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경찰, 3대 반칙행위 해양안전비리 특별단속

군산경찰서가 해양·항만분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오는 5월까지 100일동안 특별점검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3대 반칙행위 근절 특별단속 분야 중, 해양안전과 관련한 선박안전·항만비리 등 허술한 안전시설을 조기에 발견하고, 안전불감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대상은 해양 안전비리 분야로, 해양·항만관련 건설공사 비리, 선박 안전 관련 비리, 다중우박시설 안전시험 단속 등이다.

경찰은 해양안전 분야 전문가 등과 수사협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단속대상, 수사사례·착안사항, 법규 등을 공유해 효과적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박차'

군산시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대형공사장, 종교시설, 공동주택, 전통시장, 급경사지 등 1173개소의 관내 시설물을 안전점검 대상으로 확정하고,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안전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유지관리체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적극 시행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시, 체육시설 관리감독 뒷전

## 청소년 출입 잦은 포켓 당구장 주류 진열·판매 등 편법 영업 여전해

허술한 신고 제도를 악용해 청소년 출입이 빈번한 체육시설에서 주류 진열·판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보 2월 21일자 8면)

특히 어린이·청소년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군산시는 청소년 출입이 잦은 체육시설에 대해 상시적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하고 있어 체육시설이 청소년 탈선의 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군산시 수송동의 한 포켓 당구장은 군산시로부터 체육시설(당구장) 신고필증을 받은 후 이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이에 세무서는 지자체로부터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토대로 해당 업소에 주류 판매가 가능한 소매업(잡화 및 식품판매)으로 사업등록을 내줬고 업주는 이를 이용해 버젓이 주류를

진열·판매하는 등 편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물물 구별된 주류는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나 대어를 위한 전시 및 진열이 금지되어 있다.

더욱이 체육설로 분류된 포켓 당구장은 다른 체육시설과 달리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청소년 출입이 많고 미성년자 출입에 시간제한이 없는 관계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로 하지만 해당 관청은 이를 확인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무도장 등 일부 시설물을 제외한 체육시설 내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해당 업소에 체육시설 신고필

증을 내준 후 현장 감독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행정처벌과 같은 법령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허술한 법규와 신고제도를 악용해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우후죽순 늘면서, 허술한 행정 앞에 법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오히려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 출입 시설에 대한 인·허가 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청소년 담당 경찰관은 "청소년과 관련된 법규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를 확대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 관련기관은 인·허가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철저한 현장실사를 통해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시늘푸른학교 졸업식 열려

### 38명의 성인 학습자 초등학교 인정 받아

군산시늘푸른학교가 군산시 평생학습관 강당에서 초등학교인정과정을 졸업생과 수료생 60여 명과 함께 첫 회의 뜻 깊은 졸업식을 가졌다.

초등학교인정과정은 성인학습자가 일정 문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초등학교 학력인정을 받는 제도이다.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여 올해 군산에서 38명의 성인 학습자가 전라북도교육청의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한다는 인정서와 함께 졸업 액자와 졸업증을 받았다.

특히 이번 졸업식은 문해 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후원해 준 기업체 등의 응원메시지 영상과 작년 입학식에 행했던 1년 동안 학습자들의 각오와 소망이 담긴 소망캡슐을 오픈하는 행사로 진행돼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동신 시장은 축하를 통해 "제상에 대한 작은 용기로 시작하여 글 모르는 부끄러움을 버리고 두려움을 산 졸업생 여러분들은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진정 성공한 삶의 주인공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 전북서부보훈지청, 정부 3.0 일환 보훈정책설명회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읍시 보훈회관에서 비군사적 대비 강화를 위한 2017년 보훈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정읍시 각 보훈단체장(8명) 및 정읍시 관계자가 참석하여 2017년 달라지는 보훈제도 및 중점업무 소개, 주요지원사항 설명,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보훈정책설명회는 국가보훈처 연두업무보고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바탕으로 국가유공자 보상에 예우 강화에 전북서부보훈지청과 정읍시가 서로 협력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익산시-시의회-원광대

# 상생발전 TF팀 간담회 개최

### 지역현안 해결 위한 논의

익산시는 익산시·익산시의회·원광대학교가 함께하는 지역사회 상생발전 TF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지영 부시장, 김용범 안전행정국장, 김주일 문화산업국장, 김정수 익산시의회 부의장, 박종대 시의원, 원광대 배종환 기획처장, 김규수 학생복지처장 등이 참여하여 지역현안 해결에 의견을 모으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간담회에서는 인구 30만 사수를 위한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협조요청과 원광대 승강장설치 의견수렴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익산시와 원광대는 2014년 상생발전 TF팀이 결성된 후 익산시의회와 원광대의 현안으로 익산 글로벌교류센터 건립, 원광대 교직원·가속사 대학생 잔업 운동, 창조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원광대 경유 시외버스 승강장 설치 관련 등의 논의를 해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원광대 관계자는 익산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가 개

최함을 뜻깊게 생각하며 현안 해결과 지원에 대한 대화로 발전적인 자리가 되었다며 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시의회 김정수 부의장과 박종대 의원도 "익산시와 원광대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간담회가 정기적으로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지영 부시장은 "교육이 힘을 얻으면 인구증가의 동력이 돼 학생도 늘어나고 주민들의 평생교육 기회도 늘어나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며 "원광대와 익산시는 상생발전을 위해 동반자가 되어 서로 협조하면서 품격 있는 도시 익산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군산시, '2018년도 국가예산 발굴·3대 핵심과제 추진 보고회'

군산시가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18년도에 국가예산 1조 300억 원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3일 오후 문동신 시장 주재로 전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국가예산 발굴 및 3대 핵심과제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신규로 발굴된 25개 사업(322억 원)에 대한 국가예산의 필요성과 추진일정, 이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군산시의 2018년 국가예산 목표는 총 291건의 1조 511억 원이며, 신규사업 25건 322억 원, 계속사업 266건 1조 189억 원이다.

신규 사업으로는 ▲ICT융합형 건설기계부품 시험시설구축(18억 원) ▲군산~여천도 항로 노후 여객선 대체건조(38억 원) ▲국도4호선 잔여구간 개설사업(69억 원) 등 25개 사업이다.

계속사업은 ▲플라즈마기술융합연구동 건립(115억 원) ▲군산항유지 준설사업(60억 원) ▲군산전북대병원건립(113억 원) 등 266개 사업이다.

이날 국가예산 발굴보고회와 함께

2017년도 시장운영의 큰 방향이 될 3대 핵심과제인 경제활성화·관광광역화·아이디어행복에 대해 각 부서별 수립된 핵심과제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논의하는 3대 핵심과제 추진보고회도 이어졌다.

3대 핵심과제 주요내용으로는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고용안정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고군산연결도로와 동백대교 완전 개통대기 관광광역화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시민이 체감하는 어린이 행복도시 조성을 핵심으로 총 93건의 실행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항에 다목적 관리·소형 역무선 부두 확충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군산항에 2020년까지 다목적 관리부두와 소형역무선부두 2개소를 확충하기로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이달 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목적 관리부두는 해경정·실선선 등의 다양한 목적의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를 말하며, 소형 역무선부두는 항구에 정박한 배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예선 급유선 등의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를 일컫는다.

이번 용역에서는 지난해 9월 고사된

'제3차 전국 무연항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항만운영여건 개선을 위해 3000톤급 관광선과 소형 역무선이 접안 할 수 있도록 합선 7기와 진입항로 준설 설계 등의 과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부두 기능전환과 관련해서는 항만 이용자의 조정 및 반대 의견에 대해 관련 업·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후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본격 착공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꿈을 실현하는 도시 군산**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